

## 2022년 2학기 교환학생 수기

건국대학교 송현주

저는 2021년 10월부터 한학기 동안 오차노미즈여자대학교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송현주라고 합니다.

지난 한학기 동안의 교환학생 경험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학기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인해 일본으로의 입국이 불가하여, 일부 학생 이외에는 기본 온라인 수업의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주로 zoom을 통해 이루어졌고, 과제로 팀플과 발표가 포함되어있는 수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아닌 시간에도 팀원들과의 회의를 위해 zoom을 사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들은 수업은 두 종류로, 유학생을 주 수강대상으로 하는 수업과 유학생과 일본인 학생 모두를 주 수강대상으로 하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유학생이 주 수강생인 수업에서는, 일본어 연습 3b 수업이 특히 재미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업에서는 자신 나름의 인터뷰 주제와 대상을 선정하여 그 대상과 일본어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는 팸플릿을 제작하였습니다. 제 흥미와 관련된 주제로 일본인과 인터뷰를 한다는 것이 무척 재미있고 신선했습니다. 인터뷰 허가를 얻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중한 어투의 일본어로 메일을 쓰거나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일본어 면에서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유학생과 일본인 학생 모두가 주 수강생이었던 수업의 경우는, 일본어학 개론과 다문화 공생론의 2개가 있었습니다. 이 두 수업은 제가 한국 본교에서 전공하고 있는 일본어교육과 교육공학에 관련된 수업이었기 때문에 수강 전부터 흥미도 있었고, 실제로 무척 도움이 되기도 했기에 기억에 남습니다.

일본어학개론 수업에서는 주로 일본어 문법에 대해 공부한 후, 팀별로 주제를 선정하여 일본어 수업을 설계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팀 내에서 유학생과 일본인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면서, 외국인과 모국어 화자의 다각적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매우 좋았고, 교육방법에 대한 공부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다문화 공생론 수업에서는 글로벌 연수에 대한 사례 연구를 진행한 후, 팀별로 국제실습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대체로 전문용어로 된 원어전공책을 많이 읽었고, 교육설계 실무에 가까운 본격적인 그룹활동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공부가 많이 된 과목이었습니다. 팀원끼리 오랜 기간에 걸쳐 이야기를 나누면

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실습을 설계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일을 담당하기도 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정말 제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불가피하게 온라인유학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 1학기 동안의 교환학생으로 다른 유학생이나 일본인 학생들과 교류도 할 수 있었고, 수업을 받으면서 배울 것이 너무 많아서 1학기로 끝나는 것이 안타까울 정도로 스스로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